

15분 모의고사 1회 정답 및 해설

(0506 모의평가)

문법

1.㉓ 2.㉒

1. 시점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시점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인 문장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㉓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한 행동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미래에도 진행될 것이라는 진행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㉒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행동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과거 완료이다. ㉑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기에 현재 완료이다.

★ 생각하자

시간표현을 공부할 때, 시제는 물론 상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진행상, 완료상은 16수능 A형 13번에도 단독 문제로도 출제되었습니다. 반드시 '상'의 개념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2. 어휘 구조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저희들'과 '너희들'은 이미 '희'로 복수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복수의 의미를 지닌 '-들'을 붙여 결국 복수의 의미가 중복 표현한 단어이다. '외갓집' 또한 이미 '가'에 집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집'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앞 말의 일부를 중복하여 표현'한다는 두 번째 조건도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뼈와 골은 같은 의미를 지녀 단어 자체가 중복되었지만 '앞 말의 일부를 중복'한다는 두 번째 조건에 맞지 않는다.
- ③ '쓰다'의 명사형 '쓰임'이 반복되었지만, 이는 '쓰임'이 단독 형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 ④ 단오와 날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이다.
- ⑤ 교차와 로가 결합되어 '가로세로가 엇갈린 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약 '교차로길'이라 했다면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생각하자

'-희'와 '-들'의 쓰임은 무엇일까요? 어근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해 주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접사입니다. '접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독서

3.㉔ 4.㉑ 5.㉓ 6.㉑

3.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자격루는 물시계와 시보장치,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방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서 ㉔는 물을 흘려보내는 파수호이며, ㉑는 이 물을 받는 수수호이다. 이 둘을 합쳐 물시계라 한 것이다. ㉒는 시간을 소리로 바꿔주는 시보장치이며, ㉓는 이 둘을 연결시켜 주기에 방목이라 할 수 있다.

★ 생각하기

지문은 자격루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글입니다.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면 이 문제처럼 구조를 시각자료로 주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는 기본패턴 문제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구조의 부분을 빈칸으로 준 다음에, 선택지에 세부내용일치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읽으면서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면 반드시 <보기> 문제에 시각자료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빈칸 부분을 찾으려 하며 읽어야 합니다. 연습을 해야 실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세요!

4. 새로운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3문단을 보면 시보 인형은 시, 경, 점을 중, 복, 징을 쳐서 알려준다고 했다. 이 중에서 경과 점을 알려주는 2개의 인형은 경점법이라는 우리의 고유한 시간 표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보기는 경점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를 통해 볼 때, 경, 점은 매일 조금씩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보 인형 중 두 개는 오늘날의 일정한 시각을 알려주는 분침, 초침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③경과 점의 길이가 해뜨고 지는 시각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다.
- ④경과 점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기에 시간 간격은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 생각하기

지문을 읽으면서 자격루가 알려주는 시간과 경점법으로 알려주는 시간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나요? 자격루는 물시계를 통해 시를 알려주는 것이지만, 경점법은 <보기>처럼 하룻밤을 5등분하여 경으로, 경을 5등분하여 점으로 나누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서로 다른 원리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죠. 단순히 주어진 정보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상의 차이를 생각하며 독해해야 합니다.

5.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격루는 자동적으로 시간을 알려주기에 자동 물시계라고 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계식 장치의 측면

이 강하다. 그렇기에 디지털 방식을 도입한 기계식 시계라고 본 것이지, 자격루 자체가 디지털 방식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물시계 부분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에 오늘날의 아날로그 방식과 유사하다.
- ②자격루는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긴 했지만 아직 기계식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방식의 오늘날 전자식 시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 ④자격루의 시보 장치는 연속적인 물의 흐름을 디지털 방식의 불연속적인 신호로 바꾸어 부는 부분이다.
- ⑤시보 장치의 동력은 방목에서 제공한다고 했다.

6. 독자의 비판적 반응

정답해설 : 심화 학습이란 제시된 내용에서 한 차원 더 발전된 내용을 얻기 위한 학습이다. 또한 '자격루의 원리'에 대해 심화된 내용의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글을 읽으면 자격루의 작동 원리가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자격루가 오늘날의 시계처럼 정확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차가 누적되었을 때 발생하는 차이를 어떻게 보완했을지를 묻는다면 이는 자격루의 원리를 더 한층 이해하는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⑤자격루의 원리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 ③일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방법은 자격루의 원리를 떠난 질문이다.
- ④제시된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나, 이 또한 자격루의 원리와는 상관이 없는 질문이다.

현 대 소 설 7.② 8.④ 9.② 10.④

7.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다음날이란 난장이 가족이 집의 매매계약서를 쓴 다음날이다. 서술 시점이 바뀐 것은 맞게 볼 수도 있으나 대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난장이 가족이 집을 판다는 매매계약서를 쓰는 순간 영희의 행동은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비극적 상황과 대조되어 이 상황을 더욱 비극적이게 보이게 한다.
- ③아버지의 손에 들린 책을 매개로 하여 아버지와 지섭의 과거 일이 삽입된다.
- ④아버지와 지섭의 대화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 영희를 찾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⑤내 머릿속에는 가출한 영희에 대한 생각이 이어지면서도 행동은 돌을 던지고 있다.

★ 생각하기

위의 해설지에서 '서술 시점이 바뀐 것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요? 선생님 생각은 아닙니다. 서술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변하지 않았 습니다. '시각'을 '다음날'이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설의 선택지에 나오는 '시점'은 '서술 시점'인 개념으로서 보아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소설의 개념어 중에서 시점과 시각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206 모평 27번 <보기>에 보면,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즉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지만 '시각'은 서술자의 것일 수도, 인물의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로 '시점'과 '시각'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점'은 우리가 개념으로 알고 있는 '1인칭, 3인칭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시각'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념하기 바랍니다.

8. 표현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부분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중간에 삽입된 것으로 이 집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집을 파는 사건 자체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짧은 표현 속에 그간의 사정을 담아내고는 있으나 이들 가족이 떠돌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숙명을 읽어 내기는 힘들다. 다만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음을 알 수 있고(힘 하나 없는 식구들의 이름), 이 사건 자체가 가족에게는 비극적인 일이며 어쩔 수 없는 일임을(철거 게고장) 짐작하게 한다.

9. 조건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나의 아버지 난장이는 이상 세계로 달나라를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설명대로라면 달나라는 그만큼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으며, 그 이상 세계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10. 다른 장르로의 변용

정답해설 : 아버지가 돈을 받는 순간에 삽입된 지섭의 목소리는 불만을 담고 있다. 이것은 집을 팔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지섭의 판단과, 이를 통해 난장이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긴장을 누그러뜨리기보다 오히려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본문에 제시되지 않은 영희의 감정을 제시하여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②본문에서는 어머니의 심정이나 생각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시나리오에서는 어머니가 과거 이 집을 지을 때의 회상 장면을 삽입시켜 놓았다.

③사나이의 소리에 행복했던 과거의 회상에서 집을 팔아야만 하는 비정한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⑤어머니가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집의 매매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겹치는 어머니의 멍한 표정과 장면의 바뀔,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